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12

Cover Story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로버트 코크란 교수

Special Column

기독교와 정의

상대적 정의인가? 보편적 정의인가?

‘도가니’ 열풍을 통해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의

서평 :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사)기독교세계관학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룸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룸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룸



인텔 / 마리골드룸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전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변윤미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12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8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로버트 코크란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CONTENTS 2011.12

COVER STORY

06 지상강연_ 예수님과 법 로버트 코크란

10 시대를 이끄는 기독교법률가 로버트 코크란 이국은

SPECIAL COLUMN

기독교와 정의

16 법_ 상대적 당파성 정의인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의인가? 조영길

20 교육_ 정의(正義)와 교육 강영택

24 문화_ '도가니' 열풍을 통해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의 김건주

28 경제_ 한국 사회, 정의를 말하다 황의서

32 경영_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영 이권창

36 환경_ 기독교가 환경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유정철

WORLDVIEW IN CHURCH

40 행복한 부장집사,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들 윤해영

CULTURE

46 쓰롤란 십자가 윤성진

BOOK REVIEW

50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한반도에서 성서 새롭게 읽기 김영명

WORLDVIEW NEWS

53 활동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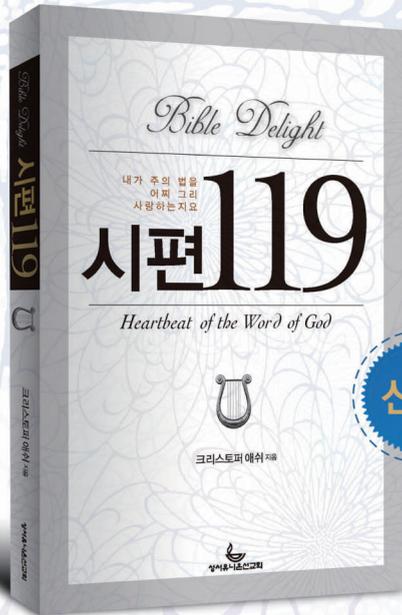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킴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팍팍한 삶 속의 당당한 외침,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Bible Delight 시편 119



크리스토퍼 애쉬 지음
김진선 옮김
값 10,000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것이 이 책의 일차적 목적이지만, 시편 119편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 데이비드 잭맨(David Jackman)

“늘 주느라 바쁘고, 때로는 큰 부담감에 짓눌린 숨 가쁜 사역자들에게 영혼의 유익한 자양분이 될 책이다. 하루에 한 단원씩 공부할 것을 권한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 딕 루카스(Dick Lucas)

크리스토퍼 애쉬(Christopher Ash)는 영국 런던의 콘힐 트레이닝 코스(Cornhill Training Course)의 책임자다. 콘힐 트레이닝 코스는 데이비드 잭맨과 딕 루카스가 설립한 강해설교 훈련 기관으로,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EMA)에는 존 스토틀, 제임스 패커, 존 파이퍼, 팀 켈러, D. A. 카슨 등의 설교자들이 함께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는 매우 뜨겁습니다.

마이클 셴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읽기 쉽지 않은 경제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책을 덜 읽는다고 하는데, 유독 이 책은 일본에서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인구대비로 보면 무려 4배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하니, 한국사회가 정의에 대해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호는 '정의'에 대한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야 할까요? 정의는 법의 핵심적 이념입니다. 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하고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성경적 정의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호를 준비했습니다.

☉ 김승욱(편집인, 중앙대 교수)



WORLDVIEW 지상강연

예수님과 법

이 글은 지난 6월22일 부여에서 열린 제5회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에서 미국 페퍼다인 법학전문대학원 로버트 코크란(Robert Cochran Jr.)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코크란은 이 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의 법질서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실정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의 루이스 브랜다이스 석좌교수이다. 카슨-뉴만 칼리지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로클러와 로펌 변호사 생활을 거쳐 1980년대 초부터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불법행위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그는 기독교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이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2001) 등 다수의 기념비적인 저작을 편집하였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법종교윤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페퍼다인 로스쿨의 학생들은 그를 '가장 인기 많은 교수(The most beloved professor)'라 부르기도 한다.  번역 한정철

인간의 내적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 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다. 하지만 그 중 많은 경우는 인간 삶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실정법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다. 가령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들은 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와 실정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주로 마음과 의지의 변화에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세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산상설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마음에 기초한 왕국을 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실정법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이 행해지면서 우리 행동이 바뀌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정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와 실정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세상 왕국이 아닌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정법의 한계

이에 반해 실정법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특정 법규가 인간 행동을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의 정도는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실정법은 지나친 규율 때문에 종종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정의와 사랑을 간과하게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실정법이 본래 목적을 있고, 하나님의 법이나 천국에서의 삶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다. 인간의 법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법 그 자체나 서기관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에 대한 비판은 21세기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뉴욕 주택관리규정에 따라 마더 테레사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던 노숙자 보호소가 문

을 닫아야 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출입 설비 미비가 그 조치의 이유였다.

그래도 법을 통해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적인 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구원자로서 정의를 강조하셨다. 실정법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을 위한 장소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정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주신 점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 성경적 근거가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에 의해 온다 하더라도, 법을 포함한 각종 제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면의 변화는 개인적인 일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개개인의 변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시민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 사회가 정당한 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권력 행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정의로부터 공권력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는 법과 신앙을 이분적으로 생각한 마틴 루터 목사나 재침례교와는 다른 의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현실 정치나 사법제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때 법은 더 많은 선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규제에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

의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이웃사랑의 실천 수단

현대 실정법은 사회 정의를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논쟁에서도 관련 법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식에 관한 율법을 위반했다며 자신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정작 그들의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고, 십일조 등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 신실함을 간과한 서기관들을 나무라셨다. 이는 실정법의 문언 보다는 그 법에 내재한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석되어야 한다.

정의 구현과 사랑의 실천

정의 구현이 사랑의 실천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자칫 사랑의 정신에 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가령 부를 배분할 때 사랑의 감정으로 어떤 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게 되고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의와 사랑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모든 관계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정의는 어떤 집단의 결정권자에 의해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는 정의의 실현이 사랑의 실천과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법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하나님의 법과 실정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괴리가 적어도 과거 모세의 시대에도 발견된다. 당시 괴리는 인간의 죄가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의 경우, 모세는 그것이 두 생명간의 영원한 결합이라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도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상을 어느 정도 희생시킨 것이다. 이 점은 오늘날 법률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질서를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가들은 그러한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히 하나님의 이상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려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찾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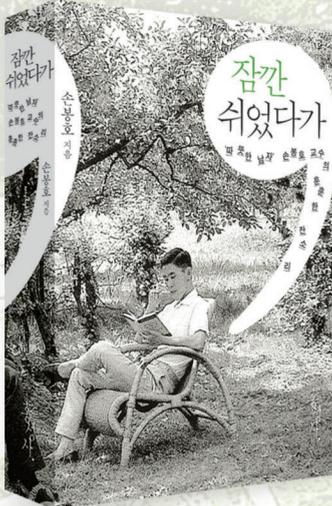


하정철 현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조지타운대학에서 법학석사(LLM), 에모리대학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신라 고도에서 배운 영어’ / ‘나의 연구실’ / ‘많은 것을 공유한 이만열’
 ‘자존심을 심어 주신 나의 부모님’ / ‘걷는 자랑’ / ‘냉방기를 틀지 않는 이유’
 “자랑은 아닙니다만...” / ‘누구든지 철학할 수 있다’ 외

잠깐 쉬었다가

‘따뜻한 남자’ 손봉호 교수의
 훈훈한 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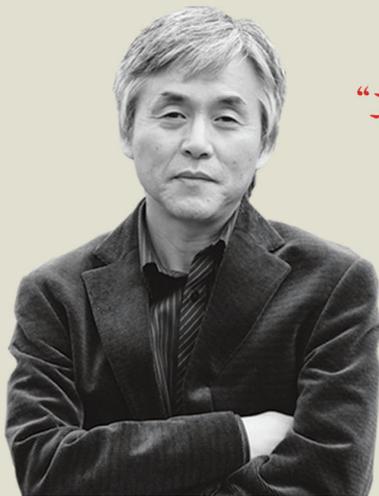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손봉호 교수의 유머와 철학, 소박한 일상의 고백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이제 그만 쉬어야지 왜 또 ‘잠깐 쉬었다가’ 하면서 여운을 남기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잠깐 쉬어야 삶의 고마움을 알 수 있다. ... 예수님도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막 6:31) 라고 하셨다. 고된 삶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글머리에’에서
 손봉호 지음 | A5변형 | 352면 | 14,000원

T. 333-5161 F. 333-5165
<http://www.hsbooks.com>

홍성사.



“그대는 왜 주기도를 드리시오?”

주기도란 무엇인가

정용섭 지음



자기 욕망의 시대를 거스르는, 공동체 기도 강의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무엇’을 비는 신앙인가. 기도의 참 대상과 참 내용이 흐려지는 시대, 모든 기도의 근본인 주기도의 회복은 더욱 절실하다. 과편화된 ‘개인’을 넘어 ‘우리’가 드리는 형제애적 기도에서 한국 교회의 희망을 찾는다.

정용섭 지음 | A5변형 | 248면 | 10,000원

COVER STORY



시대를 이끄는 기독 법률가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의 루이스 브랜 다이스 석좌교수이다. 카슨-뉴만 칼리지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로클릭과 로펌 변호사 생활을 거쳐 1980년대 초부터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불법행위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그는 기독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이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2001) 등 다수의 기념비적인 저작을 편집하였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법·종교·윤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페퍼다인 로스쿨의 학생들은 그를 '가장 인기 많은 교수(The most beloved professor)'라 부르기도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세미나실에서 한동대, 백석대 법학부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로버트 코크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인터뷰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래 전부터 꿈꿔왔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요. (웃음)

이렇게 사려 깊은 그룹과 함께 하게 되어 저도 참 좋습니다. 특히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가라는 직업과 제 신앙 사이의 관계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 4연방 항소 법원의 직원으로 몇 년 일했고, 그 후 5년 동안 로펌에서 법실무에 종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과목은 불법행위법, 법조윤리, 그리고 법과 종교 등입니다. 페퍼다인에서 많은 것을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는 법률구조 상담소(Union Rescue Mission Legal Aid Clinic)였습니다. 기독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숙자 등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지요. 또한 법·종교·윤리 센터의 소장으로서 기독교신앙과 법실무를 연결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어요. 또한 이를 통해서 법률 분야에 기독교적인 비평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독법률가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급한 요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독 법률가들을 필요로 하는 분명한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일 때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의 이의를 대변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느낀 건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다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들은 법률 상담을 훨씬 넘어서는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도움들에는 심리적인 것 의학적인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기독 노숙자 보호소나 그와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기독교적 법실무의 훌륭한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도움을 필



으로 하는 전체 영역을 채워주자는 거예요. 기독 단체들과 협력해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또 비교적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신앙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미국 내에서 이미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스도인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가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소송에서 기독교적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1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졌던 Christian Legal Society Case¹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지요. 일반 대학인 캘리포니아주 헤이스팅스 대학 내 모든 단체가 종교를 근거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게 최종 판결의 골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의 종교 단체 가입에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얼핏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계속 확장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엔 국가가 기독교 대학들에게 종교적 특성을 고집하지 말라고 요구하

는 수준에까지 이를지도 모르거든요. 이 사건은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의 문제였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요.

기독 법률가로서, 평범한 일상 활동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윤보다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적 법실무에 관해 정리하자면, 법률가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묵상하고 그것이 인생 전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약 10년 전에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을 시작했는데, 크리스천 로스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 로스쿨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버지니아 로스쿨은 주립 학교로서 세속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배경에서의 법학 교육과 다르지 않나요?

로스쿨 3학년 때 만난 톰 쉐퍼(Tom Shaffer)라는 교수님

1. Christian Legal Society Case : 헤이스팅스 법대 내 한 기독교 단체가 회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동성연애를 포함하여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학생들의 가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학교 측은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이에 대해 이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연방 법원과 대법원이 학교 편을 들어줌에 따라, 학내 기독교 기관들은 그 리더십에 요구되는 기준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얘기를 해 볼게요. 일반 대학에서 크리스천 법학교수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분이 ‘종교와 법 (Religion and Law)’ 이라는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1970년 중반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수업 첫 날 교수님은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왜 이 수업에 관심이 생겼는지 물어보셨어요. 수강 동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참여한 수강생들의 기독교적 배경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어요. 가톨릭, 여러 종류의 개신교, 알미니안, 메노나이트, 감리교도 등... 나중에 교수님은 “어쨌든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니까, 누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침묵이 있었죠. 그곳에 비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고, 그 때부터 제가 법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법률가라는 직업의 성서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해주셨던 거죠. 어쨌든, 일반 대학에서도 크리스천 법학 교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的主講사인 리트윈 박사(휘튼대학교 전 총장)의 구분에 따르면, 제가 근무하는 페퍼다인 대학교는 포괄 모델(Umbrella Model)에 확실하게 들어맞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한

동대학교는 체계 모델(Systemic Model)에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대가 포괄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웃음)

저는 체계 모델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포괄적인 모델의 로스쿨은 세속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이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 포괄 모델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압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페퍼다인 로스쿨은 포괄 모델 대학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더 큰 존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포괄 모델이, 기독교적 모델에 몰타기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나름대로 가치 있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로스쿨에는 정통파 유대교도인 사무엘 레바인 (Samuel Levine, 현재는 Touro college law center 재직) 교수 같은 동료들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구역성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했죠. 물론 부딪치는 갈등들도 생깁니다. 가령 교수 임용 문제 관련, 몇몇 사람들은 다른 비기독교인 교수를 더 많이 임용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와 같은 대화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더 기독교적인 대화를 하며, 비전을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하는

교수들 의견은 다르겠지요.

수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기독교인일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마주치게 되는 도전들은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주제를 피상적으로 다루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깊은 수준으로 관련 내용을 짚고자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헤매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초점 맞춘 전문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 가르쳐온 과목들 이외에 두 과목을 더 가르쳤는데, 그 중 하나가 ‘전문 법조인의 신앙과 윤리’입니다. 수강생들은 이 제목으로부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다루는 과목임을 알게 될 거예요. 나아가 강의 개요를 통해서도 특히 기독교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이후 ‘법률적 사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과목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기독교적 법이론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마이클 맥코넬(Michael W. McConnell) 교수 등과 함께 같은 이름의 책으로 만들기도 했지요.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는 포괄 모델의 대학에서도 그리스도인 교수들은 기독교적인 강의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밖의 다른 과목에서도 그리스도인 법학 교수들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문제로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률가직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접근이 기독교적 법학 연구의 영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셉 알레그리티

(Joseph Allegri) 교수의 『법조인의 소명』(Lawyer's Calling, MP 역간)과 같은 책이 많이 읽혔었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법을 바라보는 이론이나 설명이 보다 더 풍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법학자들의 다음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 법학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책을 저술 하면서 카톨릭, 루터파, 칼뱅주의, 침례교파의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상당히 폭넓게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특정 종교의 전통을 바라보면서 법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내부의 특정 전통을 기반으로 한 법학 연구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넓은 기독교 법학의 관점에서, 가톨릭적 자연법 전통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기독교 법학자가 실정법 비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입장 중 자연법 이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연법 이론은 법을 바라보는 가톨릭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솔직히 저는 성서로부터 자연법 이론의 통찰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주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연법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성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통찰은 자연법과 성서를 모두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법학자들이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법 이론의 가치 중 하나는 우리에게 토론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전통들, 즉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전통들, 또

는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법이나 정치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0~30년 동안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차이점이 상당히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동등한 인간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늘의 법을 나누는 것이 공통된 정치적, 법적 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과 같은 기본법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불법행위법을 가르치는데 신앙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연결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법학교수단체(Law professors' Christian fellowship)'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컨퍼런스도 열고, 거기서 주로 학술적, 직업적 토론을 가져왔습니다. 첫 해에 가톨릭 신자인 노트르담 로스쿨의 제라드 브래들리(Gerard Bradley) 교수가 신용장²에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 가르침, 그리고 훈련에 친숙하지 않은 채로 특정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명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불법행

위법을 가르칩니다. 아퀴나스나 다른 사람들은 정의의 다양한 형태들과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사회 속 불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들, 곧 정의와 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성경과 불법행위법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법행위법이 단순히 그 요건이 무엇이고 적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불의를 바로잡는 법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s' 라는 책에서 저는 가톨릭의 보충성원리³와 칼뱅주의의 영역주권론⁴의 입장을 기초로 불법행위법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불법행위법에서 적어도 가족과 종교 집단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노력해온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면책제도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연결 고리를 발견했던 한 가지 예입니다. 불법행위법의 전체적 경향이 중간 집단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쪽이기 때문에, 영역주권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문제지만, 중간 집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더 파고들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3. 보충성 원리: 초국가기구와 연방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자제
4. 영역주권론-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분야에 나름의 영역에 합당한 주권이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로서 학문과신앙연구소장이기도 하다. 헌법 및 법사회학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헌정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 일차적 결실을 담아 『헌법(책세상, 2010)』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에서의 정의

상대적 정의인가? 보편적 정의인가?

글 조영길

인간의 내적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는 법의 핵심적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쉽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는 연구 과제이다. 오늘날 정의를 이해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대성과 이해관계성(당파성)에 주목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성과 타당성에 주목하는 견해이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당파성적 정의 개념이 익숙하다.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자유시장체제에서도 이 정의관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철학적 측면에서 이 정의관을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념은 사회주의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도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정의관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성경적 정의관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상대적 당파성 정의관

상대적 상파성 정의관은 정의를 시간과 공간, 문화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들은 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정의는 없다고 여긴다. 유물론과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상대적 정의관에 이르게 된다. 태초에 존재한 물질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 생명체들로 진화했듯,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정의 역시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정의를 담고 있는 철학, 윤리, 종교, 법률 등은 그것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인 당파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당파성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관에 의하면, 지켜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보편적인 정의’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당파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혹 보편적 초당파적 정의관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의관이라고 비난한다. 대신 소수와 다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별하여 다수의 가난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정의관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계급주의 철학적 신념을 가진 상당수 교사들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장차 무엇을 하려는가 물으면 “법률가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 이런 정의관에 영향 받는 법률가들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더 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굳이 이러한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많은 건 정의이고, 손해가 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적 이윤 중대를 마땅히 추구할 가치로 여기는 것, 정치 활동이 각 정당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당파적 정의관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 당파성 정의관의 폐해

상대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정의관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더 많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이나 손해를 추구하는 것보다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정 기준을 넘어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우리는 ‘탐욕’이라 하여 경계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한 이익만이 정의로운 것이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의 이익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강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불의한 이익은 어떠한가? 약자의 거짓말, 폭력, 파괴, 무리한 요구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익 충돌은 물론, 이를 관철하려는 힘의 대결은 필연적이다. 맹자가 양나라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애기다. 혜왕은 인사말 겸,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국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무슨 이익 될까를 기대하는 양나라 혜왕에게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하필 리(이)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義(의)를 뒤로

가난한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나 그들의 불의한 탐욕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까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혼동시키는 것이 상대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이 강한 정의관이다.



하고 利(이)를 먼저 하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 이익만을 말하는가 질책하며(何必曰利),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하면 국가 공동체는 이익 충돌로 인한 싸움으로 위태로워 진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평화는 사라지며 힘 있는 자의 유익만 실현되는 불의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계급투쟁주의 역시 상대적 당파성적 정의관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소위 다수 약자들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소수 강자나 부자에 대해서는 강압과 폭력 수탈 등의 실력 행사를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지난 세기 역사를 통해서도 계급투쟁주의의 정의 실현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소련의 스탈린 2,000만 명 학살, 중국 모택동의 1,000만 명 학살,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의 2~300만 명 반동세력 학살

등 반대세력에 대한 대량 학살이 혁명 과정에서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경제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업주의 최대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자들의 가난과 고통은 외면한 채 개인의 탐욕을 정당화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공동체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의관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의는 이해관계인 당파성과는 다른 것이다. 정의는 옳고 그름, 정당과 부당의 구별 문제다. 곧, 타당성이 정의의 핵심 개념으로, 타당한 가치와 기준은 모든 인간의 양심을 올린다. 인간 본연의 양심은 시대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핵심 개념은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표현 형태나 존재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류 법학이 추구하는 정의는,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보편 타당한 가치와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 있다. 모든 사람은 옳고 바른 것, 정당하고 합당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정직, 합리, 공정 등의 가치를 타당하게 여긴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이 올바른 정의관이다.

앞서 말했듯, 가난한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나 그들의 불의한 탐욕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수 약자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선하고 바르다는 주장은 그럴듯하나 거짓말이다. 그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 가난한 약자는 공홀과 자비의 대상으로,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까지 도울 수는 없으며 구제의 대상이 정의의 기준일 수도 없다. 이를 교묘하게 혼동시킨 것이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이다.

성경도 가난한 자의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고 수 차례 언급하고 있다(레19:15, 출23:2,6).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간에 불의한 유익, 즉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로운 이익이라면 강자나 부자의 것이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소유의 많고 적음, 권력의 유무 등이 정의를 나누는 기준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정의는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인간은 물질의 이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파적 정의관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왜곡하는 그릇된 정의관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초당파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와 기준을 진리라고 부른다. 혹은 원칙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사40:6,8)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보편적 타당한 정의를 지키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 안에서 자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 결과 힘이 아니라 타당한 정의가 지배하게 되어, 이익에 대한 대결과 싸움이 사라질 수 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 보편적 타당성의 정의관이 사람들에게 잘 심겨져서, 국가 사회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며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노동정책자문위원, 노동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노동법 쟁점 해설(공저, 1998)』,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Ⅰ,Ⅱ(2011)』이 있다.



살 가운데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 후원요청

지난 10년간 수 천 명을 따뜻하게 재워주던 예문실(학생 숙소)에 난방 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온풍기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겨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공사비는 약 1,200 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성탄절 전에 공사할 수 있다면 겨울 학기를 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브리를 사랑하는 관심있는 회원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농협중앙회 249-01-205546 (예금주 라브리선교회)
대표전화 : 033-673-0037

교육에서의 정의

정의(正義)와 교육

◎ 강영택

정의, 그리고 기독교적 정의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정의란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일상화된 단어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정의를 깊이 숙고하고 실천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투어의 운명처럼, 정의는 이제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떤 울림도 만들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여전히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더구나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메시지가기도 하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는 사회적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했다. 진리가 사고체계에서 최우선적 덕목인 것처럼 말이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와 그의 동료들은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에서 정의를 공평함(fairness)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의의 세 가지 종류를 제시했다. 첫째 과정적 정의는 사회가 운영되는 규

칙의 공평함이다. 둘째는 분배적 정의로, 보상에 대한 사회체제 즉, 재화와 기회의 분배에서의 공평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총체적 정의로,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적 질서가 얼마나 공평한가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정의는 보응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응적 정의는 주로 사법제도와 관계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 핵심으로 한다. 사회적 정의 혹은 기본적 정의(primary justice)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에서는 보응적 정의보다 사회적 정의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를 말할 때 종종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 사회의 주변인(marginal people)들이 기본적인 권리

우리의 학교 교육은 높은 학업 성적 획득과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교육목표로 삼고, 학생들은 정의를 실천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의와 교육

“기독교적 교육이란 정의를 위해 정의롭게 가르치는 것이다.” - 기독교 교육학자, 철학자 월터스토프(Walterstorff)-

정의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육 방법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위한 교육은 먼저 학교에서 정의롭게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혹 교실에서 교사가 정당한 권위(authority)를 내세우지 못하거나 부당한 권력(power)을 휘두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예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 가치에 부합하는 존엄성을 표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작업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예가 된다. 정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불의(不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성(tendency)을 계발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는 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다음 세 가지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둘째는 빼앗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르치는 것. 마지막으로 만일 일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 빼앗긴 자들을 도와줄 의무를 지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의와 교육

교육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는 정의가 실천되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교육 목적에서조차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내에서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은 이미 고착화가 되었다. 성적이 우수한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교실과 수업은 다수 학생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정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고등학교 간 차이 역시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현재 특성화고로 분류)의 교육 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난다.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한편, 전문계고의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곳도 있지만 특목고의 교육과 비교할때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의롭지 못한 교육 현실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표면적으로 정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다수 학교들은 높은 학업 성적 획득과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 없는 다른 것엔 관심을 쏟지 않는다. 정의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해 관심 가질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하진 않을까. 학생들은 정의를 실천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정의는 학교 안에 있지 못하고, 교정 밖에서 배회하고 있다.

정의가 교육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결핍된 학교, 나아



정의의 기반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리를 상실한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

가 정의가 결핍된 사회가 된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안타깝게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명문대 졸업자들의 임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20%이상 높다는 통계, 특목고나 명문대 입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이 그 외 학생들에 비해 훨씬 좋다는 보도는 이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은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를 다니고 낮은 임금의 직장을 다니며 평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주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이 학업성취도나 학력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별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이 발표한 사회정의 수준에서 한국은 OECD 31개국에서 25위를 차지했다. 터키, 칠레, 멕시

코 등이 한국보다 아래였다. 한국은 사회정의 지표 가운데 사회적 결속력과 차별, 빈곤예방, 세대 사이의 공평성, 교육기회 등에서 OECD 평균 이하였다.

정의를 위한 교육

정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다. 이것이 결핍된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사회공기관인 학교는 정의를 교육 목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교와 교회에서의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의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와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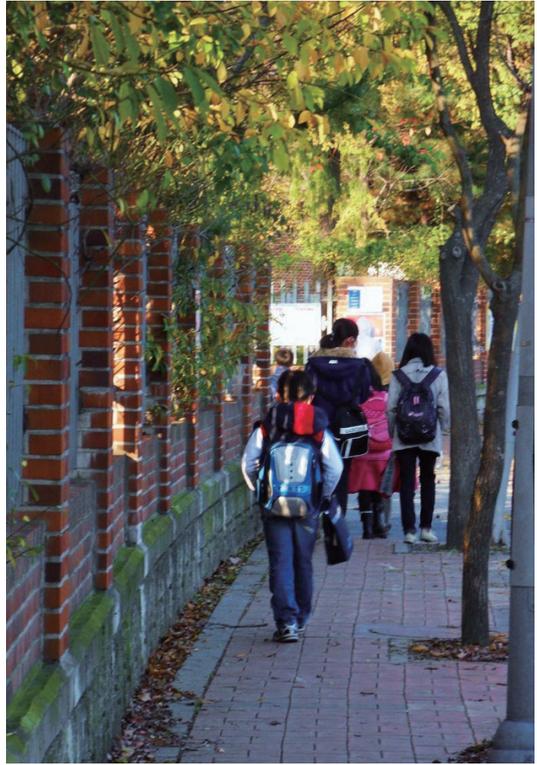
첫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경향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지식의 중요한 특성은 실천에 있다. 학교나 교회에서 정의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작은 실천으

로 이어지도록 교육하여 정의에 대한 경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둘째, 타인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희생자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와 교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비판적인 분별에 기초하여 사회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정의의 구현은 개인적인 실천과 더불어 사회질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생존권, 교육권, 취업권 등의 권리는 개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 학교체제에서 실패하여 교육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 이 때 고통당하는 그 학생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동시에 사회구조적으로는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실패한 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체제를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정의의 기반에 사랑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는 권리 주장과 보호 관련, 다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해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리를 상실한 약자에 대한 관심 기반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 혹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정의를 추구한다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롬(정의와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실패한 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체제를 만드는 것이 사회구조적 정의구현이다.

평화)의 회복을 주기 위해 십자가라는 사랑의 방법을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영택 현재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공동체, 기독교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외 다수의 저술이 있다.

‘도가니’ 열풍을 통해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의’
문화, 불편한 진실, 부당한 현실을 바라보는 창이 되다.

© 김건주

도가니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울음이 곤두선 느낌.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사건의 1심 공판을 맡았던 검사가 검찰 통신망에 올린 재판이 있었던 날에 썼던 일기의 일부다. 일기는 절실한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를 쳐주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다.”

잊혀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열풍이 되어 돌아왔다. 영화 한 편의 힘이다. 영화 ‘도가니’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실제 사건이 바탕이다. 하지만 영화는 창작물이다. ‘도가니’에 나오는 장애아동 성폭력의 생생한 장면과 진실을 은폐하는 추악한 뒷거래는 관객들의 분노를 자아내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다.

원작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공분’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만큼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평가한 이들이 많다.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성공했다. 아니, 그 불편함 때문에 영화가 성공했는지도 모른다. ‘도가니’를 통해 일어난 분노는 변태성욕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감추고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

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희생양을 찾는 이들에 대한 분노다. ‘도가니’에 나오는 인권 운동가 서유진의 대사가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은 1퍼센트에 대한 99퍼센트의 분노라고 표현한다. 그 99퍼센트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까지 1퍼센트에 속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해당 영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다. 영화에 출연했던 어린 연기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린다. 중요한 지적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지나친 비약일까?

19금 판정된 노래들

지난해 2월 이후 900곡에 가까운 가요가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폭력과 욕설 등 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곡이 대부분이지만, 판단이 애매한 곡들도 적지 않다. <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와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도 ‘19금’ 판정을 받았다. 장혜진의 ‘술이야’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은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의 가사에서 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되며 19금 청취불가 판정을 받았다. ‘낭만밴드 여우비’라는 인디밴드의 곡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 역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그댈 봤죠, 예전 모습 그대로요/ 수줍음 가득했던 웃음으로 내게 안겨왔었죠/ 그대 바램에 차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대여 행복해줘요 부디 웃음 가득할 날 영원하기를/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취 볼게요.”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의 노랫말이다. 청춘남녀가 헤어진 뒤 상대를 그리워하며 이별 후 쓸쓸한 기분을 표현한 평범한 가사다. 문제는 마지막 부분의 가사 ‘술 한 잔’이었다.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은 이 곡을 음반이든 MP3로든 들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술은 담배와 마약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노래가 어린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들이 청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곡 ‘비 오는 날엔’도 같은 상황이다.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가/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문제였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케이스의 금연광고, 호주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2012년부터는 로고와 브랜드를 없애고 촌스럽고 충격적으로 디자인한 담배케이스만을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노래들이 19금 판정을 받을 만큼 음주나 흡연을 미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술이나 담배라는 단어보다 전반적인 문맥과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한다면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경고하는 사진을 호주 수준으로 큼지막하게 넣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호주는 흡연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호주연방정부가 직접 담배 포장지를 흉측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담배갑에 흡연에 따르는 질환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갖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째 거듭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자.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전 중 나온 말이다. 여러 명의 연예인이 상대 후보에 대해 지원유세를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곧이어 상대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해당 연예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원은 자발적 정치참여였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다. “연예인 오라가라 그러는 정치인 되지 마십시오.”

국민 모두가 그렇듯 연예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 요즘은 자의로 사회 참여에 열심인 대중예술인이 많이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 그런데 예상했던 불이익은 예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당 소장파 의원 몇몇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 정부를 “웃자고 한 풍자마저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이 대중문화의 역할은 아니다. 시대의 고통과 슬픔, 절망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중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몫이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자 역할이다.

압하는 정부”로 빗대며, ‘비판적 방송인의 퇴출’을 지적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부당한 현실이다.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앵무새의 목을 꺾어서는 안 된다. 대중문화는 그 시대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고 문제를 지적해 준다. ‘도가니’ 열풍에서 보듯 대중을 선동하기도 한다. 대중 문화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도구다.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인 TV의 경우, 사실상 모든 TV가 교육 TV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TV를 시청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으며 교육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TV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이 대중문화의 역할은 아니다. 시대의 고통과 슬픔, 절망을 외면하는 외눈박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외눈박이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대중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몫이다. 이것이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자 역할이다.

인간은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의 비전과 사회 질서를 표현하고 경험하고 살핀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삶으로 표현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사회는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문화라고 한다면, 사회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다. 문화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사회는 ‘하드웨어’다.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실행할 수 없다.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작동하지 않는다.

문화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백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정의’를 왜곡하는 문화, ‘정의’를 잃어버린 문화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 반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문화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도가니’가 필요하다. 정의의 목이 말라 분노하는 99퍼센트의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평화인 “샬롬”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김건주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CUP 출판위원, 월간 월드뷰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다.



코스피 지수

2200

1800

경제에서의 정의

한국 사회, 정의를 말하다

황의서

적극적 정의실현으로 상생의 길을 찾다

경제학의 대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로 구분했다. 소극적 정의란 이웃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올바른 행위이다. 한편 적극적 정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올바른 행위이다. 전자는 이웃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올바른 행위인 한편, 후자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올바른 행위이다. 경제 이론의 핵심가치는 ‘이웃이 잘 살아야 자신도 잘 살게 된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소극적 정의보다는 적극적 정의 실현이 보다 더 밝은 경제사회를 이루어 간다. 한때 어느 한 편이 득을 보면 다른 편은 피해를 봄으로써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0)가 된다는 ‘제로섬사회’ 이론이 부각되었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기적 판단이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생하며 사는 게 진리이다. 가령 세계적 금융위기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다. 최근 어려워진 그리스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국가

경제가 서로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부유한 국가나 사람에게는 적극적 정의를 실현하며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한국경제의 정의실현

한국 경제 분야에서도 적극적 정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경쟁력 높은 대기업들이 수익성 약한 중소기업들을 돌보면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제품가격상승과 수출에 힘입어 17.5%의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서 대기업은 18.5%, 중소기업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은 평균보다 높고, 중소기업은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에서도 수출기업은 7.82%, 내수기업은 5.97%의 영업이익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경쟁력 차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다. 때문에 국가는 수출기업들을 환율정책과 같은 간접 방식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명향상,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윤도 확대된 상생의 좋은 모델이다.

로 인해 내수기업들은 원자재 값 상승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 이 집단들 간에 공정한 상생관계가 형성될 때야 경쟁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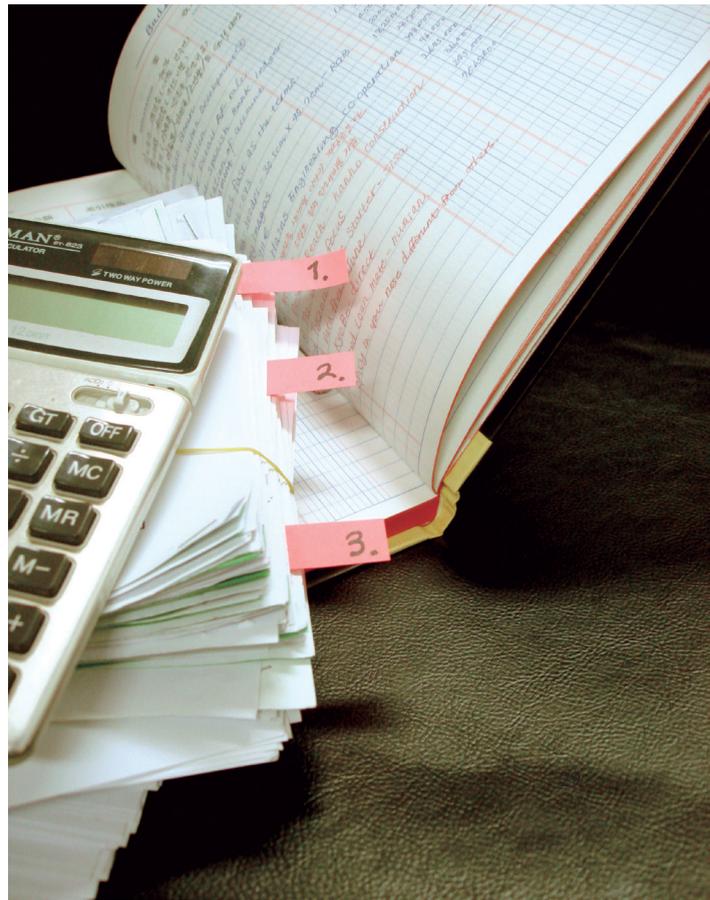
여기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2004년부터 포스코(POSCO)가 실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이다. 이는 포스코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명향상,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작년에 중소기업에 전달된 보상금은 169억 원,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76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모두의 생산성이 증가되어 경쟁력도 향상되고, 이윤도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부터는 성과공유제 참여대상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주요자재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문제와 사회적 기업

다음으로는 실업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은 곧 예배가 된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봤고, 칼빈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실업통계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실업률을 5%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식으로 실업여부를 조사할 경우, 사실상 실업률은 4배 이상 높아져서 21.2%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2010년 OECD 평균 6.0%보다는 3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평균 실업률 9.6%보다는 2배 높은 수치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특히 고시나 입사시험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2만 명의 청년층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취업된 상태라 해도 일하는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빈곤을 유발시키고, 빈부격차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인원을 확대시키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업문제는 실업자 자신과 민간경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사회적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진국들도 복지 측면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적 기업들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수익성을 확보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기업운영방식을 채택하고, 가치 창출과 혁신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영국 방식에 가까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친환경 청소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마련되고, 농촌 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나눔의 재단들이 설립되는 등 말이다. 최근에는 소규모 자금을 모아 영상이나 구제 사업 등에 참여하려는 소셜 펀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개념이 '소액 다수

의 후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으로 녹아든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들이 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런 활동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줄보다 능력에 기초한 사회를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든 장벽들이 무너져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연줄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연줄은 인간이 만든 장벽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인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연줄은 파벌을 형성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이 교육으로 사람을 망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음악을 싫어하는 자녀에게 억지로 음악 교육을 시키는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현대사회 역시,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돈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방패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보호 장치 속에 둘러싸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패망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그러한 맹목적 열정이 인생에 도움 되지 않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단지 옷 상표처럼 학벌의 상표만 붙이는 결과다. 사람이 만든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자신을 감싸주는 안전한 보호막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을 가둬두는 우물이 될 뿐이다. 인위적으로 쌓은 벽에 갇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다보면, 결국 시대 흐름에 뒤지게 되고 만다.

한국 사회의 이 연줄 문화는 세계화 시대에서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사업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같이 일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연줄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 시장 공략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면, 연줄이 아닌 '능력'에 기초하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기업들 역시 객관적 능력을 토대로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질에 의존하는 심리

가장 나쁜 심리적 의존 요소는 바로 돈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방패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을 쌓으려 욕심

내는 것은 멸망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한다(디모데전서 6:9~10 참고). 부자들은 물질로(돈으로) 매수한 권력으로 또 다른 방어막을 만들어 정의를 외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스스로 만든 보호 장치 속에 둘러싸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패망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졌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곧 도덕적 감각이 된다. 도덕적 감각은 나에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다. 경제사회가 정의를 움직이려면 경제인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기를 바라라고 계신다.



황인석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기독 경제/경영 분과 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와 신앙』,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독일 통일이야기』 등이 있다.

경영에서의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영

이건창

경영의 핵심개념과 정의

경영에서의 정의(justice, 正義)를 어떻게 정의(define, 定義) 하느냐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전략에 많은 변수가 생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영의 핵심개념을 확인해 보자. 우선, 경영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내부에서 일하는 내부고객인 종업원,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외부고객, 정부당국자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그리고 은행관계자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경영에서의 정의 역시 이러한 다수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공평성 차원에서 본 정의이다.

또한 경영에서의 정의는 건강한 이윤창출이 필수적이다.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분명 이해관계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경영은 정당한 이익창출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관점에서의 정의도 존재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갖는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정의가 있다. 이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해진 급여나 대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는 것, 정해진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등이 법률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갖는 경영에서의 정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자.

공평성 차원의 정의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특정 이해관계자를 우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내부거래를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이유도 공평성을 해쳤기 때문이다. 기업 내에서의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사전에 거래를 하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한 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을 우롱하는 불공평한 행위이다.

건강한 기업은 경영의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기업은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의 경제주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이 건강해야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일률적 평등주의는 한정된 부를 왜곡되게 배분한다. 왜곡된 공평성은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의 파멸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기업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와 국가는 힘을 잃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다.

가 있다.

첫째, 건강한 기업은 건강한 직업을 창출한다. 복지와 급여, 그리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건강한 직업이 많아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튼튼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둘째, 건강한 기업은 건강한 공평성을 만들어 낸다. 공평성에도 건강치 못한 공평함이 있다. 이미 역사적 화석으로 변해가는 공산주의에서 꿈꾸는 공평성은 건강치 못한 공평함이다. 경영이나 그에 따른 이윤 확보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평등주의로 한정된 부의 자원을 왜곡되게 배분한다. 이러한 왜곡된 공평성은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의 파멸로 이어진다. 자연스러운 붕괴과정이다.

셋째, 기업이 건강하여야만 사회와 나라도 건강해진다는 점이다. 건강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창출된 이윤의 일부는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배당되고, 국가에 세금으로도 납부된다. 그런 세금은 다시 많은 국민들에게 재배분된다.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복지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말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와 국가는 힘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이윤

건강한 이윤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빈(淸貧)의 단어부터 뜻을 새겨보자. 청빈은 '가난이 유익이다'라는 말

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경영에서는 청빈을 단순히 가난을 지향하는 말로 해석 될 수 없다. 이윤을 많이 내어 건강한 복지, 세금, 공평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윤 없이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빈은 '건강한 이윤추구'로 재해석 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종업원들의 복지와 건강을 챙겨주며,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협력 업체들에게 결제 할 금액을 제때에 챙겨주고 나서 남은 것이 건강한 이윤이다. 건강한 이윤창출은 경영에서의 정의가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큰 힘의 원천이다.

관련 사례를 보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이윤은 2010년도만 하더라도 17조원에 달하고, 그 이윤의 90%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창출된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전 세계 종업원의 수는 이미 10만 명에 달한다. 한 사람당 부양하는 가족 수를 두세 명만 잡아도 20-30만 명의 엄청난 고용연관효과가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진출한 곳에서는 이윤이 창출되고 그로 말미암아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이윤이 갖는 힘이다.

경쟁으로 본 정의

기독교인들은 경쟁을 어떻게 볼까?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오해 중 하나는, 기독교에서는 경쟁을 터부시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인과 아벨과의 경쟁은 불행히도 살인으로 막을 내렸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벌인 경쟁은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막을 내린다. 한명은 이방 민족의 조상으로, 또 한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말이다. 그리고 야곱의 열 두 아들이 벌인 경쟁은, 하나님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극적인 구원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 애굽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전무후무한 기근으로 죽음에 직면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피난시키면서 거대한 구원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치열한 영적경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경쟁에서 패배의 조짐을 보이자 다시금 모세를 등장시켰다. 그로 하여금 애굽의 파라오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하여, 드

디어 가나안 땅으로의 출애굽을 하게 된다. 출애굽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 역시 이방 민족과 종교, 풍속 등에 대한 철저한 경쟁이 있었다. 영적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지는 것은 곧 영적 패배를 의미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전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사건이다.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절제에 실패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를 지나치게 거두어 이를 보관하려 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는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민족간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 때로는 기적적인 승리를, 때로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로 끝맺음을 하면서 말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경쟁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민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예

경쟁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스런 경쟁 없이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도 경쟁원칙은 있는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수 그리스도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쩔 수 없이 한판 영적경쟁을 하셨고, 그 결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경쟁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스런 경쟁 없이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도 경쟁원칙은 있는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맺으면서

경영 현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건강한 이윤창출과 공평한 배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 고통스런 경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흔히 고통 없이 좋은 결과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피땀을 흘려서 얻은 정의야말로 진정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정의는 그렇게 쟁취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건강한 이윤창출과 공평한 배분은 경영에서의 정의를 이루는 밑바탕이다.
- 이윤창출에는 고통스런 경쟁이 수반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에 당당히 맞서 나 스스로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 현재 다른 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서지 못하면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경쟁우위는 진정한 이윤창출의 원동력이 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영에서의 정의'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이건창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제3회 매경비트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에서의 정의

기독교가 환경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유정철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을 지켜보며

지난 해 5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된 지 16개월이 지났다. 보통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할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아직도 꾸준히 서점의 가판대에, 그것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연말에 행해진 한 설문조사 결과를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아서 가장 싫어할 거 같은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꼽았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왜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결코 재미있지도, 읽

기에 쉽지도 않다는 점이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개념이 쉽게 와 닿지도 않는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궁금해졌다. 그 인기의 이유와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층일까에 대해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다.

인간의 소외만큼 중요한 자연의 소외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들은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옳은 일 하기’나 ‘평등주의의 문제와 삶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의와 공동선의 정치’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다루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절름발이이며 무의미하다. 인간이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밑줄 그으며 정독했음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삶'을 감추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니거나 책장에 꽂아두고는 이 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면서 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논술 대비용으로 이 책을 사서 읽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책이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인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 '인간의 소외'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 되었으나 '자연의 소외'는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본 공리주의나 공동선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주고 있지 못했다.

마치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다. 그 역시 한 때는 병든 세상을 구하려던 인간과 자연의 소외를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소외 문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시 마르크스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극에는 둘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자연환경 오염이, 그가 그토록 좌악시했던 서방 세계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환경정의

우리나라는 '특별법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권 말에는 각종 연안지역과 내륙을 개발할 수 있는 특

별법들이 등장했다. 현 정부에서도 친수구역 관련 특별법 등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친수구역의 범위. 국가하천 경계 양안 2km 이내 지역을 최소 50% 이상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주변 자연환경을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국립공원 내에서조차 각종 개발 사업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정의'를 가져야 할까? 기독교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자연의 소외 문제 해결'과 '옳은 일 하기'에 그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나는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다루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절름발이(lame)이며 무의미하다(empty)."고 말하고 싶다. 성경은 모든 동물들에게 신이 부여한 생존권과 본질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사람과 함께 이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하셨다. 적어도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은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형성하도록 배려하셨던 것이다.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는 생물들이 대량 멸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3천여 마리의 코뿔소 가운데 1



1. 코뿔소를 죽인 뒤 뿔만 잘라낸 모습 2. 환경단체 직원들이 마취를 시켜 힘이 빠진 코뿔소를 주저앉게 하고있다. 3. 뿔을 자르기위한 마취시간도 각각 달라 빠른 시간내 잘라야 한다. 4. 밀렵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뿔만 잘라낸 코뿔소의 모습
 자료참고 http://blog.yahoo.com/_2LOZQ4D5FZVP2OM4JRUS5SPFLM/articles/29735

천여 마리가 짐바브웨에 서식한다. 이 곳 환경단체들은 1994년부터 코뿔소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보통은 서식지 복원 노력을 중심으로 보호 운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코뿔소의 경우, 밀렵꾼들 보다 먼저 그들을 발견해 뿔을 잘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가 높아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에선 민간 약재와 최음제로, 중동지역에선 고급 단검용 손잡이로 뿔이 사용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짐바브웨 관광객들은 정상적인 뿔이 있는 코뿔소를 보기 힘들게 될 것 같다. 상징적인 코뿔소는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한 때 북미 대륙에서 가장 흔한 들새였던 미국 나그네비둘기(passenger pigeon)는 이미 멸종되었다. 이들의 큰 떼가 지나가면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므로, 이 새가 멸종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이면 서 상황은 바뀌었다. 철도 건설 노동자를 위한 식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이웃 여러 마을로 신속하게 공급되었다. 사냥꾼들은 어린 새나 늙은 새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기록에 의하면 1855년 뉴욕의 거래처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비둘기 18,000마리를 매매한 사실도 있다. 1869년 한 해 동안, 한 지역에서 750만 마리의 나그네비둘기가 포획된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창조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기록도 있다. 이러한 남획으로 인해 나그네비둘기 수는 격감하였고, 19세기 후반 더 이상 큰 번식 집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희귀한 종이 되어 버렸다. 1894년에 동지 하나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으며, 1914년 신시네티 동물원에서 최후의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이 새는 멸종되었다.

교회,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에도 관심을 갖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조차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식물을 잘 키우고 열매 맺도록 안식년을 주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자연을 관리하면, 땅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자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레 25:19).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창조세계 속에 뛰어들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오늘날 교회는 영성 훈련, 영적 전쟁, 구원, 예수 재림, 종말의 징조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심지어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작품(창조세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과 세상 모든 것에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6:5~7, 사 24:1~5, 렘 4:22~28, 욥 1:10~17), 호 4:1~3).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과 모든 자연이 서로 화목하고 축복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렘 26:3~6, 욥 5:23, 사 35:1~2, 호 2:18~22). 다시 말하면, 창조세계에서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히 성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 그리고 모든 자연을 잘 돌보고 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유정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행동생태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동물생태학>, <행동과 사회>, <환경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 소장이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한 남부전원교회 고등부 커리큘럼

행복한 부장집사,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들

교회학교의 주일 공과시간은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아이들은 공과시간이 따분하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교사들은 공과시간에 걸들기만 하는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기가 고역이다.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공과시간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한 수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공과시간을 참으로 교육답게 채워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부전원교회 고등부는 주일의 고등부 공과 체제를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교회학교이다. 교사들이 1년 간 함께 책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안을 만들고 시범 수업을 하면서 고등부 3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주일 고등부 공과시간에 기독교세계관에 바탕을 둔 수업을 실현하고 있다. 고등부 출석 인원 30명 남짓, 교사 12명 규모의 교회학교 하나의 부서가 어떻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적인 교회학교 주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년간의 커리큘럼 준비, 그리고 실행 1년 11개월, 교회학교 교사의 신앙과 삶에 교회학교 커리큘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부전원교회 길강묵 고등부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윤해영, 사진 박경민, 김종학





고등부 교회교육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고 고민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길강묵 15년 교사하면서 고민이 많이 났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세상 교육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꿈틀거리며 변하고 있는데 교회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교사도 크게 변하지 않고요. 교사의 사명을 단지 봉사의 한 부분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 열정의 발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교사의 사명과 직분은 분명 그 이상일 것입니다. 2009년에 고등부 부장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교육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교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건의했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있고, 기독교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회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에 맞는 교육 콘텐츠화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개편회의에는 부장집사, 고등부 담당 목사, 교사 두 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길강묵 기독교세계관 중심의 교회학교 교육, 청소년기에 반드시 정립해야 할 필수적인 기독교교육 소재의 콘텐츠화를 통한 교회학교 교육의 강화. 이것이 큰 축입니다. 교육 형태도 크게 전환했는데요,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공과 교육 형태에서 교사와 함께 하는 연구, 토의, 글쓰기, 발표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가 초청특강 등을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의 예산 구조를 개편했는데, 보통 연중 예산이 여름과 겨울 수련회에 거의 80%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 예산을 연중 프로그램에 알맞게 고르게 분산하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길강묵 전체 커리큘럼은 고등부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5개 영역의 대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1영역은 복음과 확신, 제자의 도 등이 대주제인데요, 이 과정은 필수과정으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제2영역은 기독교세계관, 불타는 세계비전이고, 제3영역은 신앙과 지성, 대인관계, 제4영역은 현대사회 이슈와 문화, 인물탐구, 제5영역은 실용영역으로 비전과 직업선택입니다. 각 대주제의 하부에는 소주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2영역인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영역 안에는 크리스천의 삶의 동기,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적 정치관 등 이러한 소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부 교육의 형태도 크게 전환했는데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공과 교육 형태에서 교사와 함께 하는 연구, 토의, 글쓰기, 발표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가 초청특강 등을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영역별 커리큘럼의 실제 운영이 궁금합니다.

길강목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 대해 3개월(대략 10주)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3개월 기간 동안 대개의 경우 소주제 8~10개를 다루게 되고, 중간과 마지막에 소감문을 쓰고, 서로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업 방식은 토론식입니다. 글쓰기를 주요 활동으로 넣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글 쓰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글을 보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 학습, 글쓰기, 발표, 이 세 가지가 특징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 구성은 학년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고1, 2, 3이 혼합되어 편성됩니다.

주일에 예배와 영역별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길강목 사실 예배 시간을 주일 오전 9시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도입 초기에 모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오전 9시에 약 15분간 반별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조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5분부터 10시 20분까지 영역별 선택과목 수업을 하고, 약 10분간 교제 시간을 갖고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학교 중에서 공과수업을 65분이나 진행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 특별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특별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주일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길강목 힘든 면이 없지 않았습다. 교사들과 영역별로 책을 5~6권씩 읽고,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문서

로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2009년 한 해 동안 했는데, 2009년은 거의 매일을 새벽 2시나 3시까지 문서 작업했어요. 초기에는 선생님들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선생님을 세워나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고 중요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보람 있지 않으신가요?

길강목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죠. 해야 할 일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야 할 일과 소명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커리큘럼 구성과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교사들의 교육과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길강목 지금은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한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영역별 교사가 작성한 교안을 발표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지요. 고등부 교사직이 3D업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는데, 고등부 선생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교회이든 모든 선생님들이 헌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희 고등부 교사들이 주일에 가장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편 초기에는 책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다보면 대역섯 시간 훌쩍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교사모임을 3시간은 넘지 않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교육에서 어떠한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지요.

길강목 사명자에 맞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훈련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임목사의 비전이 중

남부전원교회 고등부 남부아카데미(NBHS) 교육과정

과정	영역	대주제	소주제	
필수 과정	제1영역	복음과 확신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풍성한 삶,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각 영역 필수 활동 1. 소감문쓰기 2회 2. 발표 및 전체 토론 1회
		제자의 도	그리스도 주재권, 성경의 권위, 기도의 위력,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교제와 섬김, 이렇게 전도하라, 효율적 시간사용, 건강의 청지기	
선택 과정	제2영역	기독교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문화, 기독교와 과학, 창조론과 교과서 안의 진화론, 성경과 미디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기독교적 정치관	
		불타는 세계비전	타문화 선교 1,2, 동양문화권 1,2, 서양문화권 1,2, 제3세계 문화권 1,2	
	제3영역	신앙과 지성	청소년시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개인의 중요성, 학문과 신앙, 외국어는 필요한가, 자기개발, 크리스천의 독서생활, 말씀의 영향력, 토론과 설득	
		대인관계	가족,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성친구와 데이트, 순결한 성,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진정한 우정, 해가 되는 말-은혜로운 말, 권위와 복종	
	제4영역	현대사회 이슈와 문화	현대사회문화와 기독교, 크리스천의 정직함과 도덕성, 지구환경과 기독교, 다문화사회 이민자의 증가와 크리스천의 사명, 청소년문화 깨우기, 학교문화, 대중문화, 사이버문화	
		인물탐구	성령과 기질, 구약인물1, 구약인물2, 신약인물2, 현대크리스천인물1,2,3,4,5	
제5영역	비전과 직업선택	그리스도인의 직업, '나'발견하기, 진로와 직업가치 탐구, 직업선택도 검사1,2, 전문직종 1,2,3/ 초창강좌 진행		

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인데, 교육은 결국 선생님이 하는 것이잖아요. 교사들끼리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공유 과정은 사역의 기술이기도 하죠.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고 봅니다. 교사들 자신이 훈련받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현재 고등부 교사교육은 연구하고 훈련받고 목표와 소

명을 상기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사들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역보다는 관계죠. 그러나 목표를 공유하고, 훈련을 해나가면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역을 지향하면서 함께 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장집사님이 교회학교 부서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데에 앞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부장집사님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칭찬하는 교회는 없지 않나 싶은데,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길강목 부장집사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전체를 봐야 하고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되 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사들 개개인의 상황과 정도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죠. 목표를 향해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 지치고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부서에는 교사 안식 학기제가 있습니다. 안식 학기제는 3개월 동안 영역 담당 수업을 하지 않고, 교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1회 발표를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부서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고, 충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교사 자신의 동기부여가 지속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장집사님이요 교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작업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길강목 저는 지금 40대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생애에 길이 남는 신앙의 발자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

사를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 대상이 아이들에게 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한 분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불타는 세계비전)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활력이랄까요, 충전할 시간이 없던 것 같은데 다시 공부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 또한 많이 성장했어요. 교육 전반에 관한 고민과 관심의 폭이 넓어졌고, 교육에 대한 관점을 세우게 되었어요.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매 수업을 위해 교사가 직접 교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교안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힘들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작업인 거죠. 제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고, 경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서 좋아요.

김미리(비전과 직업선택) 기독교세계관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 있었어요. 여태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서 신앙이 다듬어졌죠.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 방식이 아이들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염려와 고민이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거죠.

손의진(대인관계)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는 한데 제 자신에게 많이 도전됐어요. 그 전에도 교사가 정해진 교재로 준비하고 공부를 해왔지만,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바뀐 다음에는 전체 교사가 스스로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안을 작성하게 됐죠. 제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진희(제자의 도) 저희 커리큘럼은 저 자신의 성장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과는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 커리큘럼이 좋고 유익하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신뢰가 커요. 교회에서 흔히 교사에

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전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정민선(인물 탐구)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일단은 좋았어요.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내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었어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려다가 목사님의 격려로 계속 하게 됐어요. 나 자신의 발전, 도전이 되는 것이 교사를 계속 하는 원동력이예요.

정영현(인턴교사) 제가 대학생이어서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남혜리(인턴교사) 아직 과정 많지 않은, 인턴 교사예요. 처음에는 행정적인 것들을 매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회의록 기록하고 선생님들에게 회람하도록 하는 것이 매주 해야 하는 일인데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아이들에게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교사 맡아서 수업하게 될텐데 친구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사모임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교안을 만들면서 교사 자신들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운다고, 더 많이 성장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남부전원교회 교등부 교사들은 그 자리에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행복한 부장집사님, 함께 연구하는 선생님들, 기독교세계관을 삶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아우르는 그 움직임 속에서 아이들도 함께 자라나고 행복해하리라 그려본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자리에서 '봉사'가 아닌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이 땅에 움튼 또 하나의 희망을 본다.



윤해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학부에서는 국어국문학, 석사과정에서는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했다. 관심분야는 성경읽기교육, 글쓰기교육, 극수업, 교재 개발, 크리스천 교사교육 등이다.



십자가 만들기(3)

쓰러란 십자가

출석하고 있는 새로운교회(담임목사; 한 흥)는 창립한지 2년여 정도 되었다. 그래서 매년 8개월 기간의 LCS(Life Coaching School) 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교육하고 있다. 나도 올해 초 27로 입학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필수로 단기 선교를 다녀 와야 했다. 국내와 해외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캄보디아 남성 1차 팀으로 참가하여 10일 동안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 글 윤성진, 사진 이영달

다양한 구성원들

우리 조는 열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사업하는 사람이 셋, 대학교수도 셋, 두 명은 기업 컨설팅, 나와 막내는 예술 종사자였다. 대부분 전문직이어서 그런지 개성들도 강하였다. 열 번의 준비 모임에서 내가 제안한 십자가 만드는 일이 다수의 찬성으로 메인 사역으로 채택되었다. 팀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만든 십자가는 ‘쓰롤란 십자가’라고 명명했다. ‘쓰롤란’은 캄보디아 말로 ‘사랑, 또는 사랑합니다’의 뜻으로 훈련 중에 우리가 지은 이름이었다.

공동작업을 구상하며

캄보디아 작은 마을 단위의 집은 마치 높은 원두막 같다. 1층은 기둥만 있고 주거 공간은 2층에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의 범람으로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뱀 같은 동물들을 방어하는 등 자연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구조다. 평소 가족 거실처럼 사용되는 1층이 예배 장소였다. 처소교회라 불리기도 하는데, 현지 청년 사역자를 목회자로 세워가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방 교회인 셈이다. 십자가 제작 사역은 이런 곳에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예배 시간에 정면에 세워두고, 그 앞에서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현지 선교사님도 좋은 생각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조각가인 나에게 할당된 몫은, 현지 사정에 잘 맞고 우리가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구상하는 일.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었기에 계속 스케치하며 생각했지만 좋은 구상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한편 이 일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운 면이 있었는데, 바로 공동작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은 대체로 혼자서 구상하고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모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십자가가 만들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무를 소재로 한 십자가 만들기

여러 주 동안 캄보디아에 세울 십자가를 구상하면서 떠나지 않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들 십자가의 테마가 이 구절에 꽂혀있었던 것이다. 재료는 단기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철재가 떠올라, 철봉에 못이 많이 박혀있는 십자가 형태를 구상했다. 그런데 막상 준비 모임에서 스케치를 보이며 설명하다보니, 제작 과정에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고만 하고 더 좋은 안을 찾아야겠다고 얘기하던 중, 앞에 있던 이영달 형제가 생뚱맞게 “나무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다. 그 때만해도 나는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면 철로 용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무라니 무슨 엉뚱한 소리’라는 말이 나올 뻔 했는데, 순간 하나의 상이 떠올랐다. 각목을 안에 대고 합판을 잘라 붙인 만든 십자가가 떠오른 것이다. 기가 막힌 재료와 형태로, 정말이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었다. 쾌재를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는 휴지예다가 말이다. 보여주니 모두들 좋아하고 그게 좋겠다 하였다. 그 안으로 결정된 데는 십자가가 아름답다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제작 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

첫째, 우리가 십자가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은 4일뿐이었다. 완성하여 전달하고 와야지, 흥내만 내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자면 재료 구입이나 도구 운반 등이 쉬워야 한다. 각목과 합판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나무를 자르고 못이나 피스를 박는 아주



1. 십자가 스케치 2. 함께한 팀원들. 뒷줄 좌로부터, 김성민, 황경환, 김 선교사 아들 형찬이, 우근태, 홍명식, 김성현, 캄보디아 청년들, 앞 줄 좌로부터 필자, 정중모, 김승욱, 이상민

기초적인 공구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둘째, 열명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동 작업의 성격에도 맞고, 작업의 분담도 용이했다. 누군가 설계도를 그려 주면, 한편에선 톱질하고, 이어서 두 세 사람이 고정시키면 된다. 더욱이 나는 캄보디아 출발 3주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와서 100M를 걷기가 어려웠다. 직접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만 해야 되는 형편이었다.

셋째, 각목과 합판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속이 빈 형태라 무겁지 않으니,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현지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역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

우리는 나무와 합판만 현지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다른 모든 장비는 한국에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 드릴과 톱, 실톱(Jig Saw), 못과 망치, 볼트 등등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220cm 높이의 십자가 두 개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 톱질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작업 방법이나 도구 사용법을 알려 주었는데, 그들이 일하

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기능이 좋은 조수들과 일을 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전심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키는 나에게서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많았고, 눈치 보기에 바쁜 그들은 정해진 양을 적당히 하는 식이었다. 여러 이해관계로 묶여 있어 일을 할 뿐, 정작 그 일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 종일 그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니 일의 능률은 최상이었다. 거기에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미리 미리 제거하여 주셨다. 작업은 예상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두 개의 십자가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처음에 십자가를 두 개 만드는 계획은 우리 팀 다음에 오는 남성 2팀에게 한 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 현지 처소교회의 공간에 비하여 너무 크게 제작되었다. 그래서 2팀에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것을 조금 작게 만들어 처소교회 용으로 제공

하고, 크게 만들어 진 건 한국인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진료병원인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거기 선교사님은 우리 생각을 동의해 주지 않고 두 개 모두 자신에게 달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 둘 다 김 선교사에게 드리고 왔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생긴 일이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었다. 다만 헤브론 병원에는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 기증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함께한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드는 특별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짧은 기간 동안 두 개의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기적적으로 완수한 우리 쓰롤란 팀에 감사하다. 오로지 신앙으로 뚝뚝 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제작 일도 하면서 팀의 살림도 하여야 했는데, 지면을 통해 소중한 팀원들을 소개하고 싶다.

팀장이라기보다는 팀장으로 우리들을 성심껏 섬기며 모든 과정을 현명하게 이끈 김성민 교수(한양대), 드릴을 손에서 놓지 않아 별명이 '정드릴'이 된 정중모 열림원 사장, '황톱'이라는 별명 얻은 톱의 달인 황경환 교수(경상대), 서기를 맡아 녹음기처럼 빠짐없이 대화를 노트북에 기록한 김승욱 교수(중앙대), 캄보디아가 초행인데도 먹거리 조달에 상상을 초월하게 탁월하였던 홍명식 사까나야 사장, 사진 촬영과 작도, 정탐 등에 뛰어났던 팔방미인 이영달 교수, 나중에 부인에게 들으니 집에선 못도 박을 줄 모

른다던데 건축회사 사장 체면 때문에 작업에 능숙한 척하며 발뺌하고 나섰던 우근태 사장, 실제로 손재주가 뛰어나 작업의 많은 부분을 해낸 진짜 테크니션 김성현 형제(기업 컨설팅),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도맡아 한 극작가 이상민 등.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캄보디아에 멋진 십자가를 세우고 돌아왔다. 그 동안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인지 여럿이 함께함으로 은혜가 내렸는지 이전의 만들었던 어느 십자가보다 월등히 좋은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만들어 놓고 보니 십자가의 형태가 캄보디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래쪽의 36개의 조각으로 된 암벽 위에 십자가가 서있는 형상인데, 바위처럼 험난한 현대사의 질곡을 겪은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 십자가가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캄보디아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상징이 되리라 믿는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성서 새롭게 읽기

◎ 김영명



이덕주, 홍성사, 2011

반이성적인 한국교회 정서 가운데 만난 반가운 책

참 반가운 책이 나왔다. 나는 이 책의 초판적인 글을 감리교신학대학교 한반도평화통일신학연구소의 무크지 「통일 이후 신학 연구 1」에서 읽고는 저자인 이덕주 교수께 단행본으로 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책의 매력은 한국 교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출판사 나 저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있어도 말이다. 얼마 전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이동원 목사가 레노바레 운동의 리처드 포스터 영향으로 가평 필그림하우스를 통해 관상기도를 시도했었는데, 비판의 소리가 많아 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대형교회 목회자였던 분이 물러설 정도로, 한국교회는 관상기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심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한국 교회의 행태를 보노라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와 정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반갑다.

이 책은 저자가 '통일 이후 한반도 신학'을 모색한 결과 내놓은 첫 작품이다. 세 번에 걸친 평양 방문, 통일 필요성의 절감, 통일 이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 등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한국 교회와 신학계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말이다. 저자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초기 기독교의 원형을 찾는 많은 연구를 제공하였다. 개론적인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기독교 사회주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후 속작업이 벌써부터 기대 된다.

성서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덕주의 교회사관은 토착교회사관이다. 민족-교회-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삼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둔다. 첫째, 토착교회 형성과 발전, 둘째, 토착 신앙의 형성과 발전, 셋째, 한국교회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관심이다! 저자는 한국 교회사의 시대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복음이 들어와 1910년 한일병합이 되기까지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시기, (2) 교회가 민족의 독립에 기여한 해방까지의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고착화된 분단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주요 과제가 된 통일 대비시기. 그는 민족의 분단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적 관점에 경도된 한국 교회의 성서 읽기를 반성하자고 말한다.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기 위해 성서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읽어 보려고 한다. 기독교 사회주의의 탄생 배경과 간단한 역사를 소개하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출애굽 공동체의 만나 이야기, 레위기의 안식년과 희년 사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천국) 비유, 성만찬 공동체, 오순절 성령 공동체 등에 나타난 균등 분배를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읽어 내서 이야기로 들려준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장 사이에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움은, 사진 아래 설명이 배경색과 비슷해서 읽는 데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다.

희망적인 신학적 해석과 사례들

이 책에 보면 잔잔하게 가슴을 적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요즘 신학의 중요한 경향은 이야기와 상상력을 중

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나 모세의 이야기처럼 기록적인 측면만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성경에는 기독교 사회주의의 원형이 많이 담겨 있다. 출애굽 해방 공동체에 나오는 만나의 경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쉬면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이삭을 남겨놓는 안식년, 새로운 자유와 평등을 주는 희년 등.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성공회 사제의 성찬 이야기다. 사실 한국 교회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두 요소 중 한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예전(禮典, Liturgy)운동²의 영향으로 성찬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일부 있으나, 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말씀만의 반쪽 예배를 하고 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담임목사의 말에 다름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는 한국 교회가 자기 신학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미국 체류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미국의 교파주의적 기독교에 대해 “종교개혁의 전통이 없는 교회”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다. 교파를 망라하고 세대주의와 청교도적 칼빈주의와 순복음주의가 기이하게 혼합되어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 저자의 신학적 해석과 사례들이 줄기 희망의 새싹이 되었으면 한다.

1. 토착교회사관에 대하여는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4-25을 참조하라.

2. 초대 기독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실시된 예배 의식과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성만찬을 동시에 행하며, 이것의 예배에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운동. 즉 예배의 성례전적 성격의 재발견, 예배의 초기 형태로의 복귀에 관심을 두는 운동이다.

신학적 조화를 이룬 내용들

저자의 입장을 보면 제3의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극단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한다. 양쪽 모두를 종합하여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제3의 이념으로서 중재와 설득력을 갖는다.

나는 예수의 나사렛 선언(눅 4:17-19)에 나타난 변두리(주변부) 신학, 곧 3L(Last, Lost, Least)의 신학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Left를 보태 4L의 신학을 지향하기로 했다. 저자의 상상력과 해석에 의하면, 좌파는 악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버리다leave의 과거분사). 역사 속에서 좌파는 '버려진' 존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이들을 지칭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좌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에 붙어있거나 하수인이 될 때 그 종교는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갔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시대의 불교가, 조선 시대 유교가 이를 보여주었고, 현재 한국 개신교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IVP)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짐을 당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었던 장면 말이다.

저자는 감리교 신학자로서 감리교적(via media) 해석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여 보편적인 기독교의 해석이 되었다. 존 웨슬리의 4가지 신학적 기준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러

한 것들이 탄탄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종합선물 세트를 맛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성서 읽기가 시작되기를

마지막으로 옥의 티를 하나 지적하자면 단순한 오자로, 121쪽에 나온 율법 두루마기는 율법 두루마리(신명기 17:18 새번역)로 고쳐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마르크스에 관한 것으로, 저자 입장이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독자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 마르크스는 신학에 가장 가까운 벗이다. 현대 신학은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데, 의심의 대가들인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중요한 신학의 대화 파트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서 읽기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열두 장의 성서적 비전인 기독교 사회주의,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해석학적 성찰의 깊이와 넓이를 직접 맛보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김영명 한양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와 SK텔레콤에서 근무한 후 감리교신학대학원(M.Div.), 호서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재대, 전주대, 호서대, 한영신대 신대원, 협성대 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우두교회 부목사와 삼원서원 원장으로 “김영명의 신학과 세계”(http://theologyworld.cyworld.com)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경옥: 한국 감리교 신학의 개척자』와 엮은 책으로 『정경옥의 요한1서 강해와 신학 산책』, 옮긴 책으로 매튜 폭스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다.

기독교학문학회 개최

제28회 기독교학문학회(회장 정희영)가 11월 12일(토) 충신대학교 제1종합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독교 학문 연구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그 동안 기독교 학문을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의 우수 논문상은 이은실(한동대) 교수의 '대학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학생 에세이 사례 분석', 안석(서울기독대) 교수의 '죄와 죄책감에 대한 정신 분석적 고찰과 기독교 상담적 적용'이 수상하였으며, 청년학술상은 박성균(충신대)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의 기독교영성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논문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정기총회 안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가 2012년 1월 16일(월) 3시에 개최됩니다. 총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하여 1월 13일(금) 오전에는 실행위원회의, 오후에는 이사회가 열리니 해당되는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회의 한해를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정기총회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DEW 기독교 세계관 캠프

2012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DEW 기독교 세계관 캠프가 열립니다. 세계관 캠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정: 2012년 1월9일(월) ~ 1월 13일(금)

장소: 한동대학교 교내

강의 제목: 기독교세계관 (2학점)

모집인원: 수강학생 50 ~ 70명

참가비: 학점 수강생(기숙사거주): 수업료 18만원

학점 수강생(외부거주): 수업료 16만원

학점 비수강: 5만원(교재, 숙식 포함)

주관: 한동대학교, 주최: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의: 최용준 교수(한동대) 010-4063-4059, crosspower@handong.edu

개회 예배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손봉호 교수 (고신대 석좌)

1강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신국원 교수 (총신대)

2강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신국원 교수 (총신대)

3강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 곽진환 교수 (한동대)

4강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전광식 교수 (고신대)

5강 기독교 세계관과 경제 김승욱 교수 (중앙대)

6강 기독교 세계관: 타락 및 구속 최용준 교수 (한동대)

7강 기독교 세계관과 미디어 강진구 교수 (고신대)

8강 기독교 세계관: 완성 최용준 교수 (한동대)

폐회 예배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최태연 교수 (백석대)

CUP 신간안내



이디스 쉐퍼가 공개하는 라브리식 자녀양육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라」

프란시스 쉐퍼와 함께 라브리를 설립했던 이디스 쉐퍼의 자녀 양육서로 부모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편집되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할머니 이디스 쉐퍼의 해안과 지혜가 담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실제적인 제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값 8,500원

2011-2013 신입생 현재 모집 중!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SICA는 인문학적 고전교육을 지향하는 국제학교 입니다!



- *모집대상 Kindergarten(유치원), 〇〇명
Grammar Level(초등1/2/3/4학년), 〇〇명
- *정 원 1학년 20명(학년별 2개 학급)
- *학교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 *문의 02-557-7710 / sicacademy@dcty.co.kr
- *홈페이지 www.sicacademy.org





Samsung GALAXY S II

4.3 SUPER AMOLED PLUS

MOTION UI

DUAL CORE